

VOGUE KOREA

VOGUE 한국판
D E C
2013
12월 209호
7,000원



<보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가다
FASHION into MMCA

<응답하라1994>의 행복한 일곱 청춘
SEVEN SYNDROMES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출산
WHAT KATE WINSLET DID

서울 디자이너들이 창조한 2014년 봄
SPRING in SEOUL

별책부록
파리·밀라노·뉴욕·런던
2014 봄·여름 컬렉션 북
COLLECTION BOOK

패딩 점퍼, 모노톤 코트, 와이드 팬츠,
빅 스웨터, 스위트 셔츠, 풀 스커트...

WINTER PLAY

PLUS
앉으면 죽고, 서면 산다
왜 마리오 테스티노는 슈퍼가 됐나!
툼 포드의 인생 2막 르네상스
수지 버블 2박 3일 서울 나들이
<그라미티>와 <푸에르자 부르타>의 충격
영화 전문가들의 2013년 한국 영화 총평
김옥빈, 장진, 루시드 폴, 토리 버치,
아리조나 뮤즈...





아론 영은 지금 맨해튼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다. 거친 마초들의 일상을 고급스럽고 미니멀한 예술로 뒤바꾼 그의 작품들은 새로운 것에 목마른 패션계를 열광시켰다. 국제갤러리에서는 그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 아론 영(Aaron Young)은 뉴욕 미술계의 화제 인물이다. 톰 포드가 애프터 파티까지 열어준 오토바이 퍼포먼스 《Greeting Card》만 봐도 그렇다. 2007년 어느 조용한 가을밤, 100년 묵은 파크 애비뉴 아모리엔 뉴욕의 온갖 멋쟁이들이 모여들었고, 사방에서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톰 포드와 그의 연인 리처드 버클리, 클로에 세비니, 테리 리처드슨,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 늘씬한 모델들과 패션계 스타들은 가스 마스크를 쓴 채 오토바이를 탄 열댓 명의 스텐트맨들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액션 페인팅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바탕 쇼가 끝난 자리엔 한 폭의 추상화외도 같은 선명한 붉은색 바퀴 자국만 남았다. 잔혹한 행위 예술로 '미술계의 악마'로 불렸던 크리스 버든의 초기 작업처럼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웠다. 스케일도 컸다. 어떤 전시에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다. 뉴욕 미술계는 이 화끈한 미술가에게 단숨에 반해 버렸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젊고 잘생기기까지 했으니까.

11월 14일부터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앞두고 아론 영은 〈보그〉에 먼저 자신의 전시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곧 한국으로 보낼 작품들의 마지막 손질을 하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Locals〉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Locals Only'라는 표지판의 문구에서 따왔다. 고향 샌프란시스코는 그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 지역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미술을 공부하기에 좋은 도시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죠." 바로 옆 동네 오클랜드에서는 그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검정 라이더 재킷에 수염을 기르고 할리 데이비슨을 탄 폭주족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아론 영의 표현에 따르면 'Hells Angels Motor Club'의 고장이다. 어린 시절 그가 주로 시간을 보낸 곳은 도시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다이아몬드 거리였다. "스케이트를 타고 거길 빠른 속도로 내려가곤 했어요. 몸을 컨트롤하는 일이 위험하면서도 우아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죠."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그가 뉴욕으로 건너온 건 2000년대 초반이었다. 졸업전에서 호평을 받았던 오토바이 비디오 작품이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팔리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확신을 얻은 그는 2005년 MoMA PSI에서 열린 그룹전 〈Greater New York〉과 2006년 휘트니 비엔날레에 연이어 참가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마초들의 전유물인 클래식 스포츠카와 우람한 오토바이, 익스트림 스포츠는 특히 그가 좋아하는 소재다. "차는 좀더 빠르게, 오토바이는 보다 시끄럽게, 스포츠는 더욱 과격해질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죠. 전 이런 이성적이면서도 비이성적인 프로세스에 매력을 느껴요." 그는 그 거칠

슈퍼 마초맨



고 폭력적인 소재들 속에 숨어 있는 섬세하고 우아한 면모를 포착한다. 찌그러진 바리케이드를 값비싼 24K 금으로 도금해 아름다운 미니멀리즘 조각 작품으로 만든 '바리케이드' 시리즈는 대표적이다. 함석판 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가속기와 제동기를 동시에 밟아 바퀴에 탄 자국을 남긴 '번아웃 페인팅' 시리즈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곡선을 그린 추상화처럼 보인다. 라이브 퍼포먼스도 즐긴다. "퍼포먼스는 즉석에서 진행돼요. 전 '행복한 우연'의 결과물을 사랑하거든요." 스티트맨들이 오토바이 바퀴로 그림을 그릴 때, 작가가 하는 일이라곤 판을 깔아 움직임의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뿐, 나머지는 모두 그들의 본능적인 움직임에 맡긴다. 카운터 컬처의 이면에 주목한 아론 영의 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작업들은 상투적인 미니멀리즘에 싫증 난 뉴욕 미술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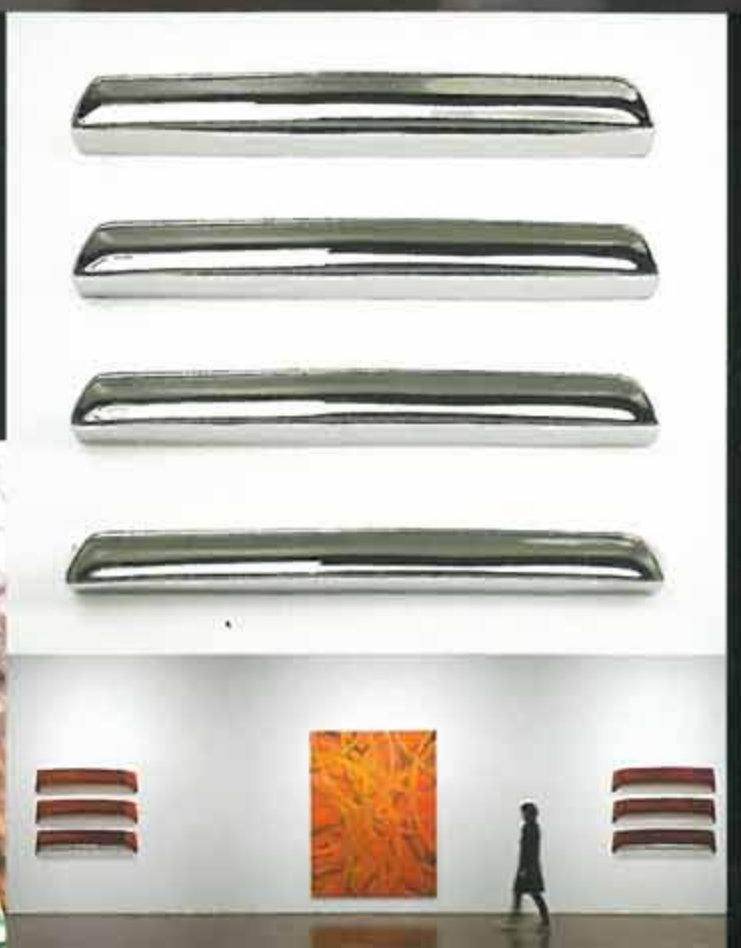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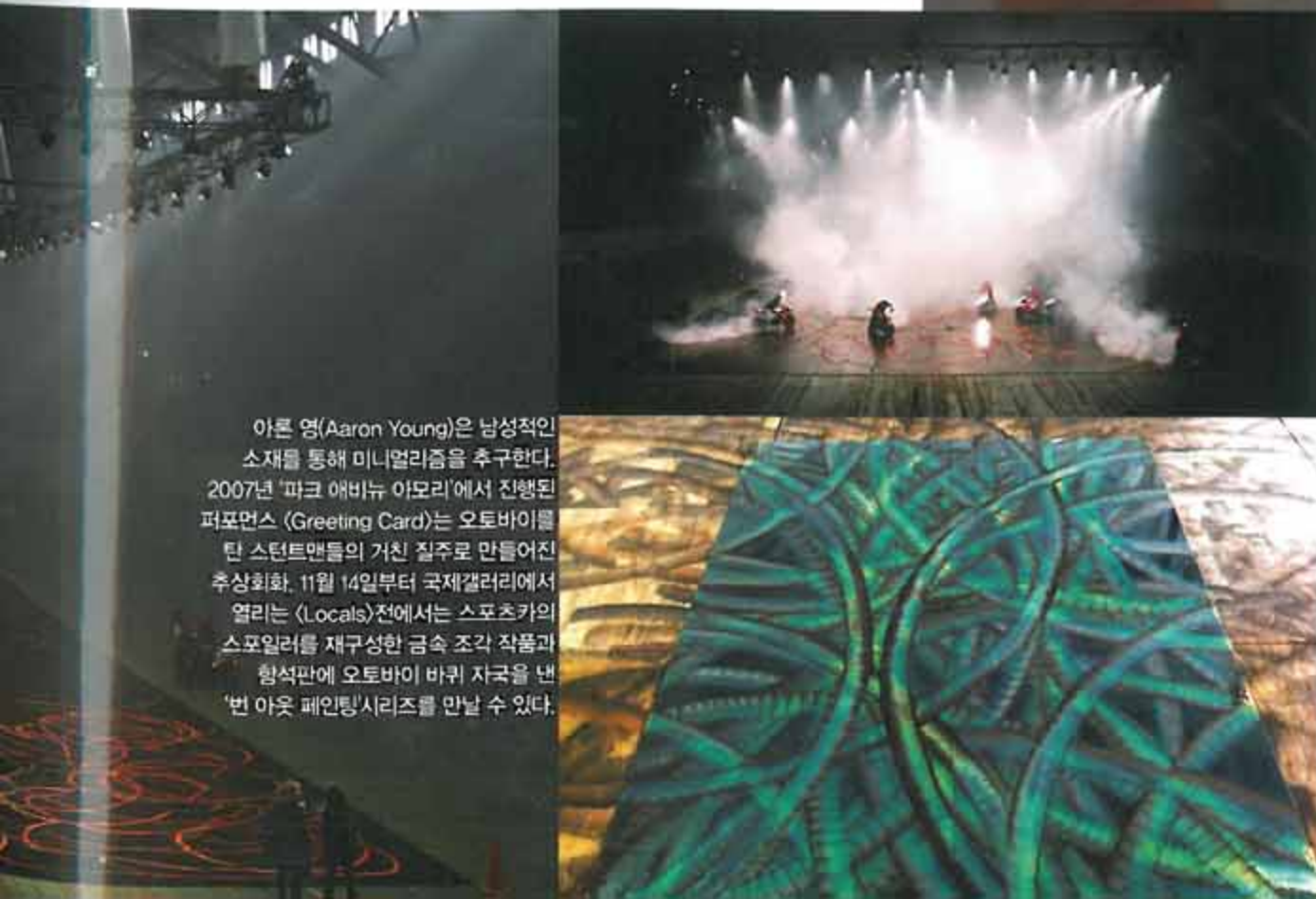
운이 좋은 편이기도 했다. 당시 미술 시장은 호황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갈구하고 있었다. 아론 영은 라이언 맥킨리, 댄 콜런, 네이트 로먼 등 신세대 아티스트들과 함께 곧장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로큰롤과 팝아트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찾던 패션계 역시 21세기 미술계의 아이돌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톰 포드도 그중 하나였다. "톰은 굉장한 디자이너예요. 예술을 사랑하고 평범함을 거부하죠. 우린 직감을 공유하는 친구예요." 어느새 아론 영은 패션쇼 프린트 로에 앉는 유명 인사가 됐다.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진행했다. 그는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갖고 있다. 아론 영이 디자인한 "Go Home!"이라는 낙서가 적힌 '서피스 투 에어(Surface to Air)'의 스웨트 셔츠는 팝 스타 제이 지도 즐겨 입는다. "원래 패션을 좋아했어요. 어머니의 클래식한 스타일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요즘 저에게는 옷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제 피양세가 세계 최고의 패션 멀티숍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론 영의 약혼녀는 멀티숍 '웨스턴 마이애미'를 이끌고 있는 매력적인 프랑스 여성 로르 에리아르 뒤브레유다. 프랑스 코냐크 지방 출신인 그녀의 가족은 유명 코냐 브랜드 '레미 마틴'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플럭서스 운동의 대부 조지 마키우나스가 살았던 유서 깊은 벽돌집을 편안하면서도 예술적인 공간으로 꾸며놓고 뉴욕에서 함께 살고 있다.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반항적인 악동 같았던 그도 40대에 접어들었다. 몇 년 전부터는 채식도 시작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기예요. 제가 사랑하는 것에 좀더 집중하고 제 삶을 보다 풍요롭게 유지하는 쪽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작업에 대해선 보다 진지해졌다. 그는 곳곳에 흩어진 작업실을 옮겨 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재료의 물성에 대한 실험도 지속하는 중이다. 전시나 다른 스케줄이 없을 땐 아침 일찍 작업실로 출근한다. "보통 오후 4시까지 뉴저지 주 저지 시티의 '마나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보내요. 작가들이 작품 제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든 빌딩인데, 그 안에 제법 크고 아름다운 제 작업실이 있거든요. 그 후엔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작업실로 가서 밤 10시까지 일해요. 그리고는 로르를 만나 동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죠." 안타깝게도 이번 서울 전시에는 로르와 함께하지 못한다. 내년 1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 서울은 충분히 구경하지 못했어요. 물론 전시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일단은 일을 해야죠.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도시를 좀 둘러보고 싶어요." 이번 전시에서 아론 영은 1960~70년대 빈티지 스포츠카의 스포일러 더미를 이용한 미니멀한 조각 작품들을 공개한다. 차량이 고속 주행할 때 전복되지 않게 도와주는 날개 모양 스포일러는 자동차 튜닝의 기본 요소다. 지난 2010년 국제갤러리 전시에서는 전시장 바닥을 온통 검정 타이어 자국으로 뒤덮기도 했다. "코스튬 오토바이나 머슬카엔 미니멀리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기계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또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침 서울에서는 그의 친구 라이언 맥킨리의 사진전도 열리고 있다. 며칠 전, 라이언이 대림미술관에 왔을 땐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몰려 그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워홀의 아이들로 불리며 무섭게 성장한 그들은 이제 뉴욕 미술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어 보다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시절의 모든 예술가들이 여전히 제 친구지만,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또 어딘가로 데려갈 거란 걸 알아요. 가끔 예전이 그림기듯 하지만 전 앞으로의 일들이 더 기대됩니다." V

에디터/이미예



아론 영(Aaron Young)은 남성적인 소재를 통해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2007년 '파크 해비뉴 아모리'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Greeting Card)는 오토바이를 탄 스티트맨들의 거친 질주로 만들어진 추상화. 11월 14일부터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Locals)전에서는 스포츠카의 스포일러를 재구성한 금속 조각 작품과 함석판에 오토바이 바퀴 자국을 낸 '번아웃 페인팅'시리즈를 만날 수 있다.